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사랑의 헌혈한다

7월1일 주일 10시30분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과 같은 피를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헌혈을 통해 나누어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7월1일 주일 10시30분부터 102호 사랑부 실에서 갖는다.

건강한 인체에는 항상 10%정도의 여유분의 혈액이 간과 비장 등에 저장되어 있고 이 중 일부를 헌혈을 통해 나누는 것이다. 또한 헌혈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도 점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혈헌혈의 경우 320~400ml, 혈장성분 헌혈의 경우 500ml를 채취하게 된다. 헌혈 전에 간단한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헌혈을 하며 고등부 학생들은 4시간의 봉사활동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으로 각막 기증식도 함께 거행하게 된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두 고가는 우리 몸 중 일부인 각막을 기증하여 항상 어두움 속에서 살고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 홍해작전 내일을 승전일로

- 승전 감사예배는 7월1일 주일 찬양예배시 -

드디어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그 동안 우리의 주위에는 사단이 험한 물길로 넘실거리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고 우리의 약함을 비웃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좇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홍해를 건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위로로 받고 이제 승전잔치를 한다. 7월1일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20일간의 긴 홍해작전 여정을 승리로 마감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승전감사예배를 드린다. 승전한 모든 성도는 이 자리에서 승리의 주님을 만나 승전가를 부른다.

## 젊은이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자

6.29 (금) - 30 (토)

꿈과 희망을 잃어버려 쓰러진 우리 젊은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도집회가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 하에 오는 6월29일(금요일)부터 30일(토요일)까지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찬양, 성극, 말씀, 친교의 풍성한 영적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 엽서발송 및 전화 심방 등을 진행중이다.

##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 성찬식 거행

맥추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중의 하나로 이스라엘은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추수한 첫 곡식단을 가지고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었다.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밀과 보리의 추수는 실감이 나지 않아 간과하기 쉬우나 이번의 4개월에 걸친 봄 가뭄을 통하여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흠족히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전세계에 재앙이 임하는 요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다음 주일(7월1일)은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된다. I II III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헌금을 드리게 된다. 교회학교별로 집회시간에 축하행사를 갖고 저녁찬양예배시간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감사절 축하행사를 갖는다.

### 이번주 이모저모



주부대학을 이수하고 - 10주간의 교육으로 마음과 영혼이 젊어지고...

## 장년1부 (30대) 총동원 주일

-7월1일(주일)-

장년1부(30대)에서는 잃은 양을 찾으며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기 위해 801호 만나홀에서 총동원 주일로 지킨다. 30대에 속한 모든 성도는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공부에 참여하여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성경대학/경로대학/주부대학 총강식

-오늘 찬양예배시-

천국시민양성을 위해 우리교회가 실시한 성경대학과 경로대학, 주부대학을 은혜중에 마치고 총강식을 갖는다. 각 과정은 총 10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8회 이상을 출석한 성도가 이번에 수료할 하게 되었다. 경로대학 60명, 주부대학 47명이 이수했으며 교사대학은 14명 수료. 성경대학은 요한계시록(II)반 13명, 지도자양성반(LTC) 11명, 골로새서반 11명 수료로 총 49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오는 가을의 교사대학과 성경대학에는 더욱 많은 성도가 참석하여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은혜받기를 원한다.

## 강남지역 장로 초청특강

서울강남노회 장로회는 강남지역의 장로들을 교파를 초월하여 오는 6월30일(토) 오후5시에 초청하여 집회를 갖는다. 이날 이종윤 목사의 특강이 있다.

### 금주의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의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개역개정판 창 18:25)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to kill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treating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like. Far be it from you! Wi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right?(NIV Gn 18:25)

# 이사야서 강해

#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이중운 목사

세상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하는 때가 있고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된 승리를 하고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 1. 바벨론 우상은 반드시 붕괴된다

우상은 짐승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뿐 자신은 물론 만든 자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바벨론은 국망이 튼튼하고 물질이 풍부하며 법률과 제도가 잘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는 우상이 많은 나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벨과 느보는 여호와 보다 강하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묶어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들 우상을 어떻게 파괴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미래 사항이지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과거사로 말씀한 것입니다. 예언은 후일에 현실로 나타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망해서 그들의 우상도 정복자로 말미암아 외국으로 끌려갔습니다(렐 48:7).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골 3:5). 그러므로 탐심은 허무한 것입니다. 현대는 가치가 전도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순서가 바뀌어 물질이 제일 위에 있고 다음에 인간이 대접을 받고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천대하거나 멸시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이 임합니다. 불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례를 다곤 신당에 두었을 때 다곤이 엎드려졌고 그 지방 사람들에게 독종의 내렸습니(삼상 5:1 - 6).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 2. 구원주 하나님을 잘 섬기자(3 - 7절)

우상을 섬긴 바벨론은 망했으므로 유대 백성은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한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상의 파괴는 곧 하나님만이 역사의 참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사야 46:1 - 13)

### (1)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3 - 4절)

"아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3, 4절).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시 27:10).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사랑하시며(시 17:8),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하시고(마 23:37),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사랑하십니다(신32:11).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자라야 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믿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상호 신뢰의 관계에서 참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4절).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사후에도 돌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늙은 후까지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 (2)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5-7절)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흥함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만 못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의 일시적 흥함도 우상이 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시 17:14).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6절). 보이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우상숭배자는 영 되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움직이지도 않고 응답도 없으며 구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금과 은을 달아주며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모순되었습니다.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 3.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패역한 자(8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12절)라고 했습니다.

패역한 자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게 끌려가는 자를 말합니다. 패역과 완악은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

며 거짓말로 숨기고 죄가 드러나면 핑계하며 악을 선이라 고집하는 악질적인 죄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참된 구원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8, 9절).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장부가 되라'(8절)는 말은 자신을 견고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남자답게 여호와 편에 가담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미지근한 것은 금물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곰팡이가 번식하게 됩니다. 신앙인 모세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그것에 반하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였습니다(히 11:24 - 26).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 됄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것을 끊어야 하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하며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11절). 여호와만 믿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미래 일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10절). 하나님은 장래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동방 메테 파사에서 고레스를 불러 유대인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신 대로(사 44:26-28)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래 일을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십니다(12절). 하나님께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나 홀로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며 구원을 시온에서 배풀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홍해작전- 기도의 행군은 계속 되어진다.

##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오늘도 발이 닳도록 충성하며 홍해의 새벽을 승리로 이끄는 차량부를 찾았다.

벌써 4시면 불이 환하게 켜지고 증마다 차량안내로 대기 상태이다.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 발걸음들!

지하실 매연 속에서도 늘 웃는 모습의 차량부원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자들이다. 때때로 작은 실수도 하지만 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박고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차량부다.

예배가 시작되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며 끝나도 기도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차량부원들의 노고는 이미 하나님의 끝없는 배려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교회의 지하실부터가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차량부원들에게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오늘도 홍해작전의 무릎을 꿇는 차량부원들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끝까지 승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차량부 화이팅!

##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어김없이 홍해를 가르려고 새벽이슬 같은 물방울 소리로 우리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매일 새벽예배에서 반주하시는 K선생님이시다. 몇 방울의 작은 소리로 시작하여 주먹만한 큰 눈물의 흐르는 굵은 소리까지 은혜를 물고 오는 새벽의 여인이다.

마치 새벽하늘에 작은 구멍을 내어 한 줄기로 쏟아내는 천상의 소리라고나 할까.

홍해를 건너는 이마다 기도제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은밀한 홍해의 새벽이 되기를 바라는 반주자의 마음이다.

새벽예배의 반주가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라고 한



다. 특별히 서울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좋은 피아노를 주셔서 더 아름다운 소리와 울림이 있다고 굳이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라고 표현한다.

새벽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지만 시은 찬양대 지휘자로 또 할렐루야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며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인 기도제목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이기도 하다.

오늘도 새벽연주를 들으며 우리 모두 홍해를 건너 건너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를 기도 드립니다.

## -고난 속에 피어난 꽃처럼-

### 6월18일 새벽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은빛 찬양대

홍해를 건너는 은빛물결은 오늘도 승리를 위해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노병들의 힘찬 찬양으로 홍해의 새벽을 연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바쳐진 삶!

은빛 머리칼을 날리며 오늘도 새벽제단의 찬양의 제물이 되고자 엎드린 그들의 작은 모습은 온 교회의 새벽을 전율시켰다. 새벽찬양을 위하여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가사를 외우시고 연습하시는 그 정성을 그때부터 주님께서 흠양하셨으리라.

분홍색 카운터로 곱게 단장하고 다소곳이 들어오시는 모습은 밤새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슬기로운 열 처녀처럼 신선하고도 당당해 보였다.

허리가 굽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인간적인 힘은 약하고 부족하여도 작은 소리가 모여져 교회를 움직이며 이 민족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은빛찬양대!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의 내일의 비전이요 믿음의 큰 유산이 되리라

오늘도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 마침내 주님의 면류관을 차지할 은빛 찬양대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고난 속에 피어난 꽃처럼 오늘 새벽에도 함초름이 피어나리라

편집부(신동기)

## 새로 왔어요 -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

### 유영준 김은미 집사(1교구)

등록과 동시에 새벽예배부터 찬양예배까지 드린다고 선생님이 자랑하시던데요?

-대전에서 이사 와서 아이들과 손잡고 걸어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은 게 서울교회였고 첫 예배드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등록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중매로 만나 짧은 교제기간 후 결혼하셨다면서 혹시 남편에 대한 후회는 없으세요?

-어릴 곁에 결혼하고 보니 유집사와 결혼은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지(딸11세), 연경(딸9세)의 교회 생활은 어때요?

-처음 왔는데 교회학교 부서에서 친구들이 거리감 없이 대해 주어 좋아하고 예배당이 깨끗해서 좋네요.

은혜받은 교회에서 느낀 점과 계획은 세우셨어요?

-말씀이 좋고, 큰 교회인데도 성도간에 친밀하고, 새 가족 프로그램이 훌륭하다고 느꼈고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수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영적, 육적, 물질적, 가족적 복을 누리며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복의 가치는 priceless 복권이다.



## ☯ 복권 땅에도 문이 열리리라. ☯

굳게 닫힌 휴전선 문을 열려고 두드리기전 사람의 마음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 문이 닫힌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불신과 미움과 거짓을 낳았습니다.

대아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보는 소인배가 되어 형제까지 원수로 만들고 이웃에게는 문을 잠그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닫힌 문이 열리려면 진리와 사랑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졌던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날 때에 그들이 서로 목을 껴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과 사랑에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모세가 기도로 홍해를 갈라 자유의 문을 열었고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가 기도로 옥문을 흔들어 전도의 문을 열었듯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새문을 열어야 합니다.

신앙칼럼모음집<순례자>중에서

# “ 6.25.... 제 51주년을 맞이하며 ”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소서

## 6.25 여름의 입구에서

긴 가뭄의 끝에 단비가 내리면서, 메말라 있던 식물들은 싱싱함을 되찾고 한층 여름의 입구에 다가선 요즘이다. 이제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장대비가 쏟아져 내릴 즈음이면 여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이다.

해마다 유월은, 곧 들이닥칠 장마를 대비하느라 분주한 계절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잊을 수 없는 피의 장마를 경험했던 민족적 상처를 되새기는 계절이기도 하다. 6·25 한국전쟁은 지난 50년간 이 땅의 긴 가뭄의 시작이자, 그 진원지이었기에 지금도 우리는 오랜 갈증과 아직 치유되지 못한 고통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해마다 유월은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전쟁터로 보내야만 했던 이들에게 아픔과 통분의 계절이었으며, 그로 인해 아물지 않는 생체기가 새록새록 덧나야만 했던 계절이기도 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환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계절이기도 했다.

지난해, 통일의 물꼬를 튼 남북정상회담은 많은 실망민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단비가 되어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0년이라는 긴 가뭄의 해갈에는 모자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전쟁이라는 혹독한 민족적 겨울의 시련을 지나, 50년의 세월을 두고 길고 건조한 봄을 이겨내었다면, 이제야말로 민족적 여름을 맞이할 때가 가까워 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가뭄은 뒤의 단비는 메말라 있던 생명을 소생시키지만 그 생명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장마철의 거칠고 역센 빗줄기였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계절을 또한번 무심코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이 올 때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와도 같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긴 가뭄 끝의 단비를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곧 들이닥칠 장마를 준비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진정한 가을이 올 때, 그리하여 수확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심판 받을 것이다. 이 계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이다.

편집부(나소경)

##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

북한 헌법 제64조에는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문제에 종교가 개입하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는 우리가 TV에 방영된 저들의 선전 방송을 통해 잘 알고 있는 평양 불승교회와 칠골교회 단 두 곳만이 공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며 그 교회에 다니는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북한 노동당의 당원으로,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어 당국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일종의 직업으로 허가 받는 골수 공산당원이다. 또한 교회에서의 설교도 주체사상과 접합된 내용이고 성경과 찬송가도 교회외부로 반출이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지난 6월1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1990년 초 북한 황해남도 안악군에서 86명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돼 일부는 처형되고 나머지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사건이 있었다고 최근 탈북한 보위부 출신의 이민수(가명)씨가 밝혔다 하되 보위부내에서 '황해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지하 교회 탄압사건이고 비밀교회를 탄압하는데 큰공을 세운 여자 정보원은 정식 공산당원이 되어 표창을 받는 큰 출세를 했다고 한다.

같은 날의 또 다른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작년 겨울에 1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기로 단두형(斷頭刑)을 당했다고 나와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존재한다. 약 3만 명 정도의 성도가 필자본 성경과 구전찬송 가지고 신앙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 공산당의 감시와 살육의 대상이 되어 두려움에 쫓기고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비밀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밝은 하늘 밑에서 자유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겠다.

### 2001 교사대학 · 성경대학 수료자 명단

#### -교사대학

김현숙 노순례 마상수 최소희 최규초 옥재만 이근홍 이상호 김인수 김예환 이학명 서춘식 이종순 송경점

#### -성경대학

##### 요한계시록반

김은태 심재을 배영애 최근자 허현숙 이민화 윤찬오 전배호 김세재 조정옥 이복규 정병무 최용걸

##### 지도자 양성반(LTC)

정병무 양중경 이인숙 송경점 강신실 박광식 박현영 김복승 김현숙 박순복 최희정 골로새서반

배영애 이민화 김경희 김정희 송두심 서춘식 양명희 박순복 오충례 장명순 위성남

#### 김치세미나에 도움 주신 가정 : 배호성 성도 안진의 성도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주일 설교

### 금 구

#### ◆ 운전자모집

- 대형1종 면허소지자 - 세례교인으로 직분자 - 신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6월 새가족 환영회를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갖는다.

공영진 김경희 김동우 김동현 김만순 김성진 김순인 김영실김은미 김태진 노용근 노임숙 박경우 박경자 박미경 박상희 박찬희 박하은 박현주 송영주 신지원 어영일 오미혜 오옥환 우승희 유상협 유영준 윤수현 윤정미 윤정아 이덕순 이동우 이성우 이순창 이운진 이은경 이재환 이종성 이현숙 임변장 전외숙 정태승 제태준 최미희 최혁순 탄금희 표명자 하규미 한혜자 홍혜표 황정아 이상 51명과 오늘 등록하신 분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6월 25일 탈북난민 UN청원 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 전광영 집사(1교구) "올해의 작가 2001-전광영전", 6월 28일 오후2시, 국립현대미술관 제2전시실
- 김어진 성도 (김태기 장로 장남) 득녀
- 신정일 집사 여영숙권사 방배동 이사
- 김훈 집사 김혜아집사 4교구로 이사
- 권오철 집사 박영애 집사 3교구로 이사
- 김대훈 (10교구) 현대전자연구소 발령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노송성 장로 이영옥 집사 (6교구) (딸의 순산을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흥해각전 12가지 기도제목 성취되도록
4.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수료자들이 사명을 갖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